

류현진 초특급 도우미 라미레스가 돌아왔다

10일만에 메츠전 복귀…4타수2안타 위력 여전
류현진 등판경기서 5할 타율…13승 지원 든든



한리 라미레스

LA 다저스 류현진(26)의 시즌 13승 달성을 위한 초특급 도우미가 돌아왔다. 한리 라미레스(29)다. 라미레스는 5일(한국시간) 시카고 컵스전에서 어깨부상을 당해 전열을 이탈했다가 15일 뉴욕 메츠전에 선발 출전했다. 10일 만에 4번 유격수로 복귀했지만, 4타수 2안타 1득점으로 변함없는

타격감을 과시했다.

라미레스는 부상으로 6월초에야 팀에 합류했지만 4번타자의 역할을 톡톡히 해왔다. 시즌 성적도 15일 까지 56경기에서 타율 0.360, 11홈런, 37타점이다. 특히 류현진이 마운드에 오르면 펄펄 날고 있다.

라미레스는 류현진의 선발등판 23경기 중 8게임에서 타율 0.500(36타수 18안타)의 맹타를 휘둘렀다. 시즌 18개의 2루타 중 5개, 11개의 홈런 중 4개를 류현진이 나선 경기에서 몰아쳤다. 타점도 시즌 전체의 3분에 1에 근접하는 11개를 류현진 등판경기에서 기록했다. 야시엘 푸이그도 류현진의 특급 도우미지만, 라미레스에는 미치지 못한다.

류현진은 12승(3패)을 올리는 동안 타자들의 득점지원을 많이 받았다. 평균 5.3점으로, 내셔널리그 2위에 해당한다. 14일 뉴욕 메츠전에서도 1회 후안 라가레스에게 솔로홈런을 맞았지만, 다저스 타선은 우완 최고 선발투수인 맷 하비를 두들겨 4점을 뽑아주며 류현진의 12승을 도왔다.

다저스는 15일에도 연장 12회 접전 끝에 아드리안 곤잘레스의 끝내기안타로 메츠를 5-4로 올리고 8연승을 질주했다. 6월 22일 이후 48경기에서 40승을 따내는 경이적 상승세다. 라미레스의 가세로 다저스 타선은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 시즌 13승과 신인왕을 놓고 20일 마이애미 호세 페르난데스와 맞대결하는 류현진의 어깨가 한결 가벼워졌다. **홍재현 기자 hong927@donga.com 트위터 @hong927**

추신수 6번째 결장…베이커감독 “실 타임”

신시내티 추신수(31)가 15일(한국시간) 리글리 필드에서 벌어진 시카고 컵스와의 원정경기에 출전하지 않았다. 시즌 6번째 결장. 신시내티 더스터 베이커 감독은 지역지 ‘신시내티 인콰이어러’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20연전을 치르는 중이고, 추신수는 체력소모가 많은 중견수 겸 1번타자로 뛰고 있다”며 “게다가 추신수는 손부상도 있다. 쉬게 해주기 좋은 시점이다”고 설명했다. 이날 경기에선 신시내티가 선발 브론슨 아로요의 7이닝 무실점 호투와 토드 프레이저의 4타수 2안타 1홈런 2타점 활약을 묶어 5-0 승리를 거두고 4연승을 달렸다. 신시내티(68승52패)는 내셔널리그 중부지구 1위 피츠버그(71승48패)를 3.5게임차로 추격했다.



노모 히데오

LA 다저스 류현진은 최근 6연승을 질주하며 무섭게 승수를 쌓아가고 있다. 신인왕 등극도 이제 더 이상 꿈이 아닌 현실이 되어가는 분위기다. 지난달 28일(한국시간) 다저스타디움에서 열린 신시내티와의 홈경기에 선발 등판한 류현진이 힘차게 볼을 던지고 있다. **LA | 뉴스**

자국리그+ML신인왕, 류현진도 노모처럼!

류현진, 노모와 닮은꼴 질주 3가지

- 1 자국 리그서 데뷔 첫 해 다관왕 맹활약
- 2 ‘검증 안된 투수’ 편견 깨고 빅리그 안착
- 3 한일 프로야구 개척자, ML직행길 터져

‘코리안 몬스터’는 ‘제2의 노모 히데오’일까? LA 다저스 류현진(26)은 14일(한국시간) 다저스타디움에서 열린 뉴욕 메츠와의 홈경기에서 7이닝 1실점의 호투로 시즌 12승째(3패)를 수확했다. 당초 류현진이 목표로 삼았던 ‘두 자릿수 승리+2점대 방어율’은 더 이상 성에 차지 않는 수치다. 이제 ‘메이저리그 신인왕’이 현실적 목표가 됐다. 류현진은 더 나아가 일본인

투수 노모 히데오(45·은퇴)에 이어 동양인 2번째로 ‘자국리그 신인왕·MVP(최우수선수)+메이저리그 신인왕’ 등극에 다가서고 있다.

●신인 때부터 최고였던 류현진-노모

류현진의 신인왕 등극은 더 이상 뜬구름 잡기가 아니다. 류현진은 쉐리 밀러(세인트루이스), 호세 페르난데스(마이애미), 야시엘 푸이그(다저스)와 함께 강력한 내셔널리그 신인왕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류현진이 현 페이스를 유지해 신인왕을 거머쥐다면, 메이저리그 최초의 ‘한국인 신인왕’이 되는 동시에 한국프로야구와 메이저리그에서 모두 신인왕을 거머쥐는 영광도 누리게 된다.

기록 면에서 류현진은 노모와 많이 닮아있다. 2006년 한화에서 데뷔한 류현진은 첫 해부터 18승(6패1세이브), 방어율 2.23, 204탈삼진

으로 투수 3관왕에 올랐다. 신인왕을 넘어 MVP까지 석권했다. 한국프로야구 역사상 신인왕-MVP 동시 수상은 류현진이 유일하다. ‘괴물’이라는 수식어가 붙은 것도 바로 이 때다. 노모의 일본프로야구 데뷔도 화려했다. 노모는 1990년 긴테쓰에 입단해 18승(8패), 방어율 2.91, 287탈삼진으로 투수 4관왕과 함께 신인왕-MVP를 동시에 수상했다. 노모도 첫 해부터 일본 최고 투수로 떠올랐다.

●한·일 프로야구의 개척자

데뷔 첫 해부터 일본리그 최고 투수로 등극한 노모는 1995년 다저스 유니폼을 입었다. 당시 그의 나이는 26세. 올해 다저스 유니폼을 입은 류현진의 나이도 26세다. 당시만 해도 일본 프로야구는 메이저리그에서 검증되지 않은 리그였다. 낯선 일본인투수에게 우려가 뒤따랐

다. 그러나 노모는 우려를 깨고 첫 해부터 13승 6패, 방어율 2.54의 인상적 기록을 남겼다. 여기에 상체를 틀어 던지는 다이내믹한 투구폼까지 화제가 되면서 ‘토네이도 열풍’을 일으켰다. 내셔널리그 신인왕도 노모의 차지였다. 노모의 성공 이후 스즈키 이치로(뉴욕 양키스), 마쓰자카 다이ске(클리블랜드), 다르빗슈 유(텍사스) 등 일본프로야구 간판스타들의 메이저리그 진출이 봇물을 이뤘다.

류현진은 한국프로야구에서 메이저리그로 직행한 첫 번째 선수다. 류현진이 첫 해부터 성공가도를 달리면서 자연스레 오승환(삼성), 윤석민(KIA) 등 한국프로야구선수들에 대한 메이저리그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류현진의 내셔널리그 신인왕 등극은 이 같은 흐름에 화룡점정이 될 수 있다.

정지국 기자 stopdonga.com 트위터 @stopwook15

美 스포츠전문웹진 “류현진, 올해 신인왕 받을 자격 충분”

‘코리안 몬스터’ 류현진(26·LA다저스)의 놀라운 행보를 미국 현지 언론도 집중조명하고 있다. 류현진은 14일(한국시간) 다저스타디움에서 열린 뉴욕 메츠와의 홈경기에서 7이닝 5안

타 1실점의 호투로 시즌 12승째(3패)를 수확했다. 방어율도 2.91로 끌어내렸고, 승률(0.800)에선 내셔널리그 공동 1위로 올라섰다. 미국 스포츠전문웹진 ‘블리처 리포트’는

15일 ‘류현진은 올해 신인왕을 받을 충분한 자격을 갖췄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사이영상을 받은 클레이튼 커쇼와 잭 그레이디, 그리고 돌풍의 야시엘 푸이그(이상 다저스) 때문에 류현진의 활약이 묻힐 수 있는데 한국에서 온 좌완 투수는 무시할 수 없는 기록을 세우고 있다”고 칭찬했다. 또 류현진이 다저스 입단식에서 밝

힌 메이저리그 데뷔 시즌 목표인 두 자릿수 승리와 2점대 방어율을 언급하며 “임무를 완수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류현진이 푸이그, 호세 페르난데스(마이애미), 쉐리 밀러(세인트루이스)와 함께 신인왕 유력 후보로 꼽히고 있는데 충분한 활약을 펼치고 있다”고 추켜세웠다.

홍재현 기자

과학으로 본 야구 스포츠동아·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과학연구원 공동기획

각 항목당 12개공 시험…한개라도 미달뎀 모두 탈락

공인구 측정은 어떻게 이뤄질까?

중량 등은 간단한 저울 사용…실밥수는 수검사 경기 영향력 큰 ‘반발계수’는 고가의 장비 사용
대포같은 장비로 20.3cm 콘크리트벽 향해 발사
주변엔 방탄 유리…사용자는 보호용 귀마개도

프로야구를 도입하고 있는 국가들에선 별도의 공인구에 대한 규격을 가지고 있다. 그 규격을 시험하는 장비를 이용해 엄격한 테스트를 실행하고 있다. 한국프로야구에서도 국내 규격을 통과한 공을 사용하고 있다.

야구공에 대한 상세 규격은 국가마다 조금씩 다르긴 해도 대부분이 반발계수, 공의 중량, 솔기 폭, 실밥 수, 공의 주위(둘레) 등을 규정하고 있다. 국내프로야구에서도 이러한 항목에 대한 구체적 사양을 규정하고 있다. 국내 규격 시험의 경우, 각 항목에 대해 각각 12개의 공을 시험한 뒤 12개의 공 중 한 개라도 규격을 벗어나면, 해당 공은 모두 규격에 미달하는 제품으로 처리돼 사용도 불가능하게 된다.

시험항목 중 공의 중량, 솔기 폭, 실밥 수, 공의 주위 등은 비교적 간단한 저울이나 정밀도가 높은 자(버니어캘리퍼스) 등을 이용해 측정하지만, 측정 대상의 특성상 모든 항목을 기계를 이용해 자동적으로 시험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사람

이 직접 시험 및 검사를 수행하고 있다.(실밥 수와 솔기 폭은 시험검사를 수행하는 검사자가 눈으로 보면서 한 땀 한 땀 직접 세고 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항목인 반발계수의 측정에는 꽤 복잡하고 고가인 장비가 사용되고 있다. 공의 반발계수는 경기 결과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가장 중요한 항목이기 때문에, 시험 방법을 엄격하게 지정하고 있다. 미국 ASTM(미국재료시험협회)에선 공의 반발계수 측정에 필요한 장비의 사양과 시험방법을 상세히 지정하고 있고, 국내서도 이에 준하는 장비를 제작해 반발계수를 측정하고 있다.

공의 반발계수를 쉽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우리가 공을 단단한 벽에 던지면, 공은 벽에 충돌한 뒤 튀어나온다. 이 때 벽에 충돌하기 전 공의 속도와 충돌 후 튀어나오는 공의 속도의 비를 반발계수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공의 반발계수를 측정하기 위해선 우선 공을 던지는 기계가 있어야 하고, 다음으로는 공을 받아내는 단단한 벽이 있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공의 속도를 측정하는 정밀한 기기가 있어야 한다.

먼저 공은 사람이 던지지 않고, 대포와 같은 장비를 사용한다. 규격 시험에선 공을 일정 속도로 벽으로 발사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위의 ASTM에선 충돌 전 공의 속도를 약 26.82m/s(96.6km/h, 60mph)로 규정하고 있다), 야구공의 크기와 유사한 크기의 파이프에 야구공을 넣고 순간적으로 고압의 가스(질소 등)를 파이프에 불어넣어 야구공을

발사하는 장비를 사용한다. 물론 가스를 무작위로 불어넣는 것은 아니고, 가스를 불어넣는 양과 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밸브가 달려 있어서 이 밸브를 조절해 시험에 적합한 속도로 야구공의 발사속도를 조절한다.

공을 던지는 기구가 있으면 날아오는 공을 받아주는 벽도 있어야 한다. 벽도 아무 벽이나 되는 것은 아니고, 시험 규격에 따라 튼튼하게 만들어야 한다. 시험 규격에선 공이 충돌하는 벽의 재질을 콘크리트로 지정하고 있으며, 벽의 두께도 최소 20.3cm 이상이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 벽 위에 두께가 5.08cm이고 한 변의 길이가 61cm인 정사각형 형태의 금속판을 추가하고, 여기에 공을 맞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을 던지고 받는 장비가 갖추어지면, 이제 공의 속도를 측정하는 장비가 필요하다. 공의 속도는 공이 일정한 구간을 통과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재는 장비를 이용해 측정한다. 이를 위해 충돌 벽면으로부터 약 30cm(정확하게는 30.16~30.8cm) 떨어진 위치에 1차 공 검출 장치를 설치하고, 다시 이 위치로부터 약 30cm 떨어진 지점에 2차 공 검출 장치를 설치한다. 따라서 공을 벽으로 발사하면 공은 공 검출 장치를 통과해서 벽과 충돌한 뒤 다시 공 검출장치를 통과하면서 튀어나오게 된다. 이 때 통과한 시간을 각각 측정해 공의 속도를 계산하고, 이를 이용해 반발계수를 산출한다.

반발계수를 측정할 수 있는 모든 장비가 갖추어지면, 이제 공을 벽으로 발사하는 스위치를 누르기만 하면 측정이 가능



야구공 반발계수 테스트 기계의 모습. 국가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야구공에는 반발계수, 중량, 실밥 수 등에 대한 별도의 규격이 있다. 사진 제공 | 이상철 박사

할까. 아마 이 상태에서 스위치를 누르면, 스위치를 누른 사람은 병원으로 바로 실려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위의 장비는 반발계수 측정에 필요한 최소한의 장비이며, 실제 사용을 위해선 튀어나오는 공을 막아주는 안전장치가 필수다. 공을 벽에 던진 후 튀어나오는 상태로 만들어서 측정하기 때문에 튀어나오는 공을 막아주는 안전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 측정장비 주위에 방탄소재로 사용되는 투명한 재질의 유리를 설치해 사용자를 보호하고, 사용자의 청각보호를 위해 청각보호용 귀마개를 반드시 착용토록 하고 있다. 쓰고 충돌하는 시험이니 좋은 소리가 나지는 않는다.

야구는 재미있는 스포츠다. 경기만 재미있는 것이 아니고, 그 뒤에 숨어있는 공을 시험하는 과정도 경기 못지않은 스텝을 주기 때문이다. **이상철 박사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과학연구원**

